

## 본당 소식

### ♣ 말씀 KEY WORD

- '표징'(세메이온) : 묵시문학의 세계 안에서 '표징'은 언제나 자연질서의 붕괴처럼 보이는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하늘이 흔들리고, 바다가 거꾸로 솟구치며, 별들이 그 자리를 잃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의 표징들은 단지 파멸의 서사가 아니라, 새 질서를 잉태하는 진통의 언어들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의 마지막 날을 말씀하실 때, 종종 파괴의 이미지로 당신의 창조를 다시 열어젖히십니다. 묵시문학의 표징은 끝의 이야기가 아니라, 끝을 통하여 새로이 시작하려는 하느님의 말하기 방식인 셈입니다.

♣ 산 고타르도 성당에 새로 부임하신 마르코 에우제니오 신부님께서 오늘 저희 공동체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신부님, 환영합니다.

### ♣ 회의 / 모임

- 청년 회의 : 11월 16일 (금일) 미사 후, 오라토리오

### ♣ 지난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209.17€ • 교무금 890.00€

### 전례 성가

입당 : 48 (주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를)  
 봉헌 : 41 (형제에게 베푼 것)  
 성체 : 46 (사랑의 송가)  
 36 (이 크신 모든 은혜)  
 파견 : 436 (주 날개 밑)  
 특송 : 목자의 노래 - D.Nolman

### 전례 봉사

이번 주일(11월 16일)	다음 주일(11월 23일)
1독서: 현상휘 루치아	1독서: 변의용 베네딕토
2독서: 박지숙 레아	2독서: 구희선 스텔라
복 사: 문수빈 미카엘라 / 정이한 다윗	복 사: 번가인 헬레나 / 정아인 레나

##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사목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정상현 안토니오 ·총무: 박건욱 레오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2025년 11월 16일

(녹) 연중 제33주일(세계 가난한 이의 날)

### 미사 전례

### 본기도

주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언제나 모든 선의 근원이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화답송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려 주님이오 신-다.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 소리쳐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강들은 손뻗 치고, 산들도 함께 환호하여라. ◎  
 ○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신다. ◎

### 제1독서 (말라키 예언서 3,19-20)

19 보라, 화덕처럼 불붙는 날이 온다.  
 거만한 자들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모두 검불이 되리니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살라 버리리라.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그날은 그들에게 뿌리도 가지도 남겨 두지 않으리라.  
 20 그러나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에 치유를 싣고 떠오르리라.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2서 3,7-12)

형제 여러분,  
7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고,  
8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와 고생을 하며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9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0 사실 우리는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거듭 지시하였습니다.  
11 그런데 듣자 하니, 여러분 가운데에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12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시하고 권고합니다.  
묵묵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벌어들여야 하십시오.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

## 복음 (루카 21,5-19)

그때에 5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6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7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8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9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10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11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12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13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14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15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16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17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18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19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가난에 시달리는  
이들과 가진 것을 나누고 함께 희망을 키우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2.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분단의 세월을 지내 온 이 겨레에 은총을 주시어, 화해와 일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대화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소서.

3. 자살의 유혹을 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자살의 유혹을 받는 이들을 지켜 주시어, 그들이 공동체 안  
에서 도움과 관심과 사랑을 찾고, 생명의 소중함에 마음을 열게 하소서.

4.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 가정 공동체를 주님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어, 주님의 가르침  
대로 살아가며 참행복과 생명의 가치를 실천하는 본보기가 되게 하소서.

##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이 거룩하신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께서 당신 자신을 기억하여 거행하라 명하신 이 성사로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